

간접흡연의 건강적 피해

정 용 / 연세대 의대교수

간접흡연 (passive smoking)이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접흡연이 공중보건상의 주요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장해 즉 알려지 반응이나 호흡기계 및 시각의 자극, 폐기능 감소, 심근질환 그리고 폐암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중 80%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약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담배연기는 건강위해도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증가하게 되는 주요 오염물질들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타르,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화합물들, 메탄, 아세틸렌, 페놀 등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약 4,000여종의 화합물들이 흡연으로 인해 배출된다고 한다.

이들 화합물들 중에는 벤조파이렌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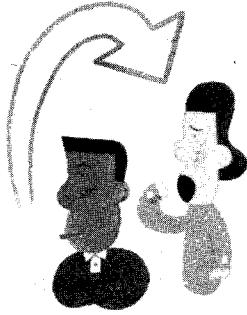
디메칠나이트로자민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20여종 포함되어 있으며, 세포독성을 지닌 물질들과 특히 폐나 간장 및 신장 등의 장기에 독성을 지닌 물질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적 피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폐암발생빈도의 증가이다.

최초의 역학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남편이 하루에 20개비의 흡연을 할 경우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폐암발생률이 1.91~3.4배정도 높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럴 경우 연간 18.1명/100,000명에 해당하는 부인들이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이 폐암발생률을 7배나 증가시키고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등의 발생률도 30~70%정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특정작업환경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비교위험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보고에 의하면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내에서 흡연자들의 폐암발생위험도는 비흡연자들에 비



해 10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계되어, 오염된 작업환경내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특정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기관지염과 폐렴의 발생률이 25.5%정도나 더 높으며, 특히 어머니의 흡연과는 더욱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임신 중에 모체가 흡연을 하였을 때 태아발생 후 태아에게 나타나는 건강장애의 상대적인 위해도가 높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모체의 흡연량 증가에 따른 소아의 암(cancer)이나 백혈병(leukemia)의 유병률 증가로 입증된 바 있다.

비흡연 성인이나 혹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장애가 발견되는 현상에 비해 기왕에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그리고 천식등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증상의 악화를 초래하며 폐기능의 감소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다른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부비강암(paranasal sinus cancer)과 뇌암(brain tumor)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발생률 증가는 남편의 흡연량 증가와 부인의 부비강암 발생률 증가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하루에 20개비의 흡연을 하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부비강암 발생률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55배정도 높으며, 뇌암의 경우는 4.32배 정도로 높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50세이상 부인들에게 나타나는 유방암 발생률 증가와 소아들의 뇌암 발생률증가 등도 보고되고 있다.

흡연이 건강장애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대체로 흡연에 의한 건강피해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피해가 반드시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흡연애호가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역학적 연구결과들에서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 효과들이 입증이 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외국에서의 경험을 도입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 교육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제도 마련에 힘써 흡연율을 줄이고 흡연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건강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